

지역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공포'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단축 돌입
증기 40% "여력 안돼...생산량 차질 불보듯"
정부 특례업종 유예기간 확대 등 보완 절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구직자들은 대기업·공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년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약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됐다.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 52시간제 확대를 두고 지역기업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추가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납기 미준수, 수주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광주지역 중소기업협회 A대표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워 만큼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업종 특성상 일손이 부족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결국

주문과 생산량을 줄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설문조사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0~299인 기업 1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7월 중소기업 동향'에서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만4,8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고 그 비용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면으로 이어짐 /김용현 기자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개장한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길을 걸으며 힐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시 '주먹밥' 관광상품화 추진

시범판매업소 10곳 선정... '대표음식' 지원조례 준비

광주시가 주먹밥을 지역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을 견어부쳤다. 시는 시범 판매업소 10곳을 선정, 조리법과 홍보 등을 지원하며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 근거가 될 광주대표음식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광고를 통해 시범 판매사업에 참여할 매뉴취득업소 10곳을 선정했다. 현재 지역에서 주먹밥을 메뉴로 팔고 있는 식당은 91곳이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

쳐 낙점됐다. 지역업체이면서 광주주먹밥과 잘 어울리고 사업참여 적극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시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만든 조리법과 주먹밥 제작용품, 시범업소 CI 등을 제공하고, 영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시는 주먹밥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3개 상표 중 '광주주먹밥'과 '나누미 주먹밥'은 등록심사 중이다. 등록을 추진했던 5·18 주먹밥은 5·18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간심사에서 탈락했다.

시는 광주대표음식 육성사업 근거가 될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지역 대표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해 관광상품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표음식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대표음식육성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황애란 기자

알림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11강'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제1기 '전남매일 광주·전남 CEO경제아카데미' 열한번째 강연이 오는 14일 라마다플라자 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사는 고졸 학력 출신 최초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오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입니다.

광주여자상업고를 졸업한 양 원장은 학력과 성별·출신 등 온갖 유리천장을 뚫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까지 오르는 등 고졸 성공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겸 여성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 전 원장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갈등속에서 광주지역 기업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번 강연에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대연회장(상무지구)
❖ 강사 :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강연주제 : '광주, 미래를 말하다'
❖ 문의전화 : 전남매일 관리국 (062-720-1012)
※ 6시부터 17층 파라뷰레스토랑서 저녁식사 후 7시 강의

M 전남매일

광주 기초의원 '외유성 연수' 후폭풍 확산

북구 공노조, 사퇴촉구시위 민주당, 윤리위 회부 '징계'

〈속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의원 의원들의 출장비 유용과 외유성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본보 7일자 1면)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징계에 착수하면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송갑석 위원장 직권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 등 의원 4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시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소명

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올해 초 당소속 의원들과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연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철저한 조사로 엄정 대응하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연수를 간 서구의원들도 연수보고서를 검토한 후 징계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도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청사 광장에서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황애란·이나라 기자

www.kimex.or.kr

2019대한민국 동합의학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19

2019.10.07(월) - 10.13(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57

주최 | 전라남도 Jeolla Namdo | 장흥군 Jangheung County | 주관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후원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